

목장모임, 주일학교

프리토리아	김장원 문현진	유창환 함은정 손은미
베를린	조혜정 김영관	정영 박애희 정경화
키르기스	이중혁 양새롬	정광 이윤경 전민교 양경모 안제호 김지인 이정후 정다운
퍼스	권영준 유나윤	다윗부
땅 끝까지	김현수 강아란	윤혜윤 박용수 문선희 조현선
발리	양순모 서은비	김은재 장해청 신상민
나짱	권오윤 김인지	김석원 이수민 김동규 김희진
우름치		양승구 김혜량 이옥희
주일학교	다윗	박소울 김지아 주송현 신지호 김재인 주송하
	믿음	김서울 박지웅 김성준 김수겸 김태인 신유나 박지훈 정시우 정시연 박도겸 김서아 유지안 박지민 김수호 유니아
	소망	양희건 유시우 김은호 김해인 정이진 양하은 이강 김민호 김리아 이지윤

교회 주소

우)13503, 별말로 40번길 3 성산빌딩 4층
(옛주소 : 야탑3동 272-4 성산빌딩 4층)

교회 관련 링크



노선 공개페이지



네이버 카페



오시는 길
(네이버지도)

모임 안내

주일 예배	1부	오전 9시	본당
	2부	오전 11시	올리브탕
	소망부	오전 11시	본당
	믿음부	오전 11시	본당
	다윗부	오전 11시	본당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김승관
사역위원 김장원 권영준
대표전화 / 070 - 4409 - 8291

협력 선교사/교회/단체

지역	협력 선교사/교회
프리토리아	김보근 선교사
베를린	박희명 선교사
키르기스	K 선교사
퍼스	변성모 목사
땅 끝까지	이강욱 선교사
나짱	K 선교사
발리	최문식 선교사
우름치	L 선교사

헌금안내

신한은행 100-025-549240
예금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예담교회

주일예배순서

- ★ 일어설 수 있는 분은 같이 일어서주세요 인도 : 김승관 목사
- 찬양 찬양팀
- 환영과 광고
- ★ 입례찬송 다같이 성도여 다 함께
- ★ 사도신경 다같이
- 봉헌찬송 다같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 (통364)
- 공기도 1부: 권오윤 집사, 2부: 김장원 집사
- 성경봉독 인도자 요한복음 2장 1-11절 시편 23편 1-6절
- 말씀선포 이세령 목사 부족과 복음
- ★ 찬양과 헌신 다같이 축복의 사람
- 강복선언 설교자

목장예배순서

- 애찬 다같이
- 올리브블레싱 다같이
- 찬양 인도 / 찬양부장
- 광고 목사 (지난 주보 목회칼럼을 읽어 주세요)
- 성경공부 인도 / 목장교사
- 나눔 다같이 (감사 나눔을 먼저 하세요)
- 중보기도 인도 / 목사
- 선교와 전도 인도 / 목사 (선교사님과 VIP 를 위해 기도하세요)

2026년 03월 15일
/제 19권 11호

영원을 향해가는 유목민
예담교회
SINCE 2008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설교요약

/결단과 헌신

일정안내

수요기도모임

03.18 권영준
03.25 유창환

예배당 청소

03.22 땅 끝까지·키르기스
03.29 땅 끝까지·키르기스

식사 준비

03.22 땅 끝까지·키르기스
03.29 땅 끝까지·키르기스

예배기도

03.22 김인지 양순모
03.29 문선희 유창환

주요 교회행사

지난 주 현황

현금

실일조	1,390,000
주일현금	340,000
주일학교/다윗부현금	26,000
감사현금	110,000
목적현금	200,000

작정현금	900,000
기타현금	100,000
선교현금	90,000
건축현금	20,000
성찬현금	-

감사의 제목

- 승진 감사합니다. 육아 휴직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한 주간 베푸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목장별 VIP 명단

목장	VIP 명단
프리토리아	유현철 김현아 김지혜 문기식 송가희
베를린	김수진 이혜림 이혜주
키르기스	박주혁 한준호 박수진 김완영 최재광 강성은 김성호 황정준
퍼스	이승주 정보민 김성원 김장운 신은영 최민영
땅 끝까지	배민경 장현정 김용현 김범수 이경주
나짱	이진아 이세라 민지은 김소혜 진서울
발리	이산아 우경민 심현섭 센센쓰루잉

교회소식

1. 교회 기도제목

① 다음세대 사역자를 보내주시도록

② 우리 교회에 넉넉한 예배 공간을 허락해 주시도록

2. 내일(월) 오전 10시 본 예배당에서 시찰회가 있습니다.

3. [작정현금 안내]

○ 작정현금의 목적

- 올리브하우스를 포함한 교회 공간의 운영

○ 작정의 기간 : 1년 ('26년 4월~ '27년 3월)

○ 방법 : 작정서에 기입하여 접어서 현금함에 넣어주세요

- 3월 15일~ 3월 29일까지

목회칼럼

교회의 두 가지 기도제목을 함께 붙들어 주십시오

신앙생활에서 개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기도뿐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를 매우 귀하게 사 용하십니다. 초대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성도들은 흩어져 각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 마음으로 모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 놀 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함께 붙들고 기도할 공식 기도제목 두 가지를 정하려 합니 다. 모든 기도회—새벽기도회, 수요기도회, 목장모임, 가정예배, 그리고 개인기도—에서 이 두 가지 제목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다음세대 사역자를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다음세대를 전담하여 섬길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이 기도 제목은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 우리 근처의 중형교회에서도 사택을 제공하고 상당한 사례를 제시함에도 몇 달째 지원하 는 교역자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 현실을 생각하면 우리 교회 형편에서는 더욱 막연 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 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그분을 위해 지금부 터 기도를 차곡차곡 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주의 종이 올 때, 그 길을 여 는 것은 우리의 기도일 것입니다.

둘째, 넉넉한 예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동안 현재 예배당에서 성인 80명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의 성장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덩치나 먹 는 양이 성인 못지않습니다.

예배는 어떻게든 분리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 점심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지만, 어르신들이나 처음 방문한 VIP 의 입장에서 보면 정신이 없을 정도로 비좁고 복잡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가족 같은 분위기를 가지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처음 오는 분들이 편안함을 느끼기 어려운 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올리브 땅(울땅) 사역이 마무리되면 당장 주일 2부 예배 공간도 필요하게 됩니 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께 길을 열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기도제목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인간적인 계산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기도로 하나님의 길을 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이 두 가지 제목을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① 다음세대 사역자를 보내주시도록

② 우리 교회에 넉넉한 예배 공간을 허락해 주시도록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같은 제목을 붙들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 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로 길을 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9

성도여 다 함께

(통 29)

찬양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계 19:4)

MADRID: 6.6.6.6.D.
Traditional Spanish Melody
Arr. by B. Carr, 1824
Harm. by D. Evans, 1927

C. H. Bateman, 1843

보통으로

1.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 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2. 밤 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3. 주 찬양 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 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

인도자 : I.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회 중 :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인도자 : II. 당신은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회 중 :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인도자 : III.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회 중 :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통일 415)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

은혜와 사랑
F. R. Havergal, 1873
조금 빠르게

I could not do without Thee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오쁨과 안함을 친히 주시는 이십이차 (행 17:25)

ENDSLEIGHT 7.5.7.6.D.
S. Ferret(1817-1874)

1. 주 주 없 이 살 수 없 네 죄 나 인 혼 의 구 주 서 여
2. 주 주 없 이 살 수 없 네 네 내 세 주 월 의 자 는 이 못 아 흐 주 서 신 리
3. 주 주 없 이 살 수 없 네 네 내 세 주 월 의 자 는 이 못 아 흐 주 서 신 리
4. 주 주 없 이 살 수 없 네 네 내 세 주 월 의 자 는 이 못 아 흐 주 서 신 리

그 힘 내 이 귀 없었 고 한 고 의 은 보 부 고 독 배 측 은 독 피 하 간 속 로 며 구 에 내 구 혜 음 생 속 도 의 명 하 없 소 끝 소 도 원 나 서 다 을 도

구 내 주 사 주 주 박 나 의 는 에 운 나 풍 의 의 의 랑 으 생 마 일 로 명 을 때 홀 또 뒤 날 리 나 알 지 신 의 보 힘 주 주 혈 이 리 시 이 라 요 니

내 주 내 내 소 님 마 결 망 을 위 계 나 의 지 로 신 위 하 하 주 로 여 지 평 들 영 혜 은 힘 광 불 케 이 될 언 하 됩 니 다 리 네 다 아 멘

축복의 사람

♩ = 70 작사/곡 설경옥

주 계 힘 을 얻 고 그 마 음 에 - 시 온 의 대 로 가 있 는 그 대 는 -

하 나 님 의 축 복 의 사 람 이 죠 주 님 그 대 를 너 무 기 뻔 하 시 죠 - 주 의

집 에 거 하 기 를 사 모 하 - 고 주 를 항 상 찬 송 하 는 그 대 는 -

하 나 님 의 축 복 의 사 람 이 죠 주 님 그 대 를 너 무 사 랑 하 시 죠 - 그 대

설 길 은 아 름 다 운 찬 송 그 대 헌 신 은 항 기 로 운 기 도 그 대

가 밍 는 땅 어 디 에 서 라 도 - 주 님 의 이 름 높 아 질 거 예 요

<http://cafe.daum.net/lovesm>